



# 한국과 중국의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관 비교연구

이향련<sup>1)</sup> · 김윤희<sup>1)</sup> · 강현숙<sup>1)</sup> · 이지아<sup>1)</sup> · Fan, X.<sup>2)</sup> · Ling, M.<sup>2)</sup> · Yuan, Q.<sup>2)</sup>

1)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동서간호학연구소 상임연구원, 2) Professor, School of Nursing, Sandong University, China

## Comparison of Critical Thinking and Professionalism between Korean and Chinese Nursing Students

Lee, H. Y.<sup>1)</sup> · Kim, Y. H.<sup>1)</sup> · Kang, H. S.<sup>1)</sup> · Lee, J.<sup>1)</sup> · Fan, X.<sup>2)</sup> · Ling, M.<sup>2)</sup> · Yuan, Q.<sup>2)</sup>

1)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2) School of Nursing, Sandong University, China

### 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critical thinking and professionalism between Korean and Chinese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and professionalism were a part of five domains to evaluate nursing education: critical thinking, professionalism, leadership, communication, and nursing practice from the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07 college nursing students: 104 students from the 4-year degree program in Korea and 103 from the 5-year degree program in China from September 2006 to September 2007. The instruments for Chinese students were translated

in Chinese and re-translated to check accuracy.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PC+ Win 12.0 Version. The  $\chi^2$ -test to compar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t-test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the study variables were conducted. **Results:** Korean nursing student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f critical thinking than did Chinese students while Chinese student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f professionalism. Students took previous courses associated with critical thinking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did those without previous courses take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cores of professionalism whether students had previous experience of related courses or not. Rather

주요어 : 비판적 사고, 전문직관, 간호대학생, 문화적 차이

투고일: 2007년 11월 27일 심사완료일: 2007년 12월 17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Jia(Corresponding Auth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 Korea

E-mail: leejia@khu.ac.kr

than,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reported higher scores of professionalism than did those without clinical practice. **Conclusion:** Levels of critical thinking were influenced by course focusing on critical thinking while professionalism was improved by combination of associated courses and clinical practice. For follow-up study, there is needed to examine nursing curriculum between Korea and China.

**Key words :** Critical think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s, Cultural difference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인정평가는 한국 간호의 질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에 한국간호평가원은 간호교육평가 인정기준의 영역을 교육목적 및 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행-재정 및 시설자원, 그리고 교육성과의 6영역으로 제시하였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06). 교육성과를 평가기준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간호교육 평가인정위원회(The National League for Nursing Accrediting Commission, 2002)와 미국 간호대학협의회 평가인정위원회(Commission on Collegiate Nursing Education, 2002)에서 간호교육성과를 평가기준의 영역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부터이다. 미국에서는 교육성과의 측정기준으로 비판적사고, 의사소통기술, 치료적 간호중재가 제시되면서 다양한 도구가 활용되고 있다(Daly, 2001;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3).

우리나라 대학평가인정제도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 질적 수준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Lee, 1999). 그러므로 교육의 인정평가는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의 양 측면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2006년부터 교육부에서 간호대학 인정평가를 한국간호평가원에 위임하여 실시함으로써 간호학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때 교육성과가 평가영역으로 포함

되었으나 교육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6년 평가 시에는 교육성과 평가를 위한 객관적 도구를 사용할 시도와 계획 만이라도 마련해두기를 권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최근까지 간호교육 성과를 전체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한국간호평가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수탁사업으로 Kim, Ahn, Kim, Jeong과 Lee(2006)가 연구한 '간호학 특성을 반영한 간호대학 평가기준 개발보고서'에서 제시한 교육성과 개념은 인간이해능력, 비판적사고력, 전문직관, 지도력, 의사소통능력, 간호수행능력 이었다. 인간이해능력은 전문직관과 의사소통능력 및 다른 도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판적사고력, 전문직관, 지도력, 의사소통능력, 간호수행능력의 5개 개념에 대해 교육성과를 측정하기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호교육성과 측정 개념 중 비판적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측정도구개발연구로 Yoon (2004), Kwon 등(2006)의 연구가 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관련 연구는 Shin, Ha와 Kim(2005)의 연구가 있고 문제중심 학습의 효과를 비판적 사고성향과 관련지어 본 연구는 Choi(2004)와 Bae, Lee, Kim과 Sun (2005)의 연구가 있으며 Ahn(2004)은 비판적 사고와 간호표준을, Cho(2005)는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나 간호교육성과측정을 목표로 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전문직관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연구는 Yeun, Kwon과 Ahn(2005)의 전문직관 도구개발연구와 성인 학습법의 학습성과를 전문직관으로 본 연구(Kim, Oh, & Lee, 1999)가 있다. 지도력은 일명 리더쉽이라고 하며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을 행사하는 과정(Shin, 1991)으로 정의하며 리더쉽 측정도구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여러 종류가 있으나 학생의 교육성과로 측정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보면 Manz(1983)의 Self-leadership 도구에 관한 연구와 Smola(1988)에 의해 개발된 Self-Assessment Leadership Instrument(SALI)에 관한 연구가 있다. SALI를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하여 인정 평가위원이 개발한 연구가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연구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되

는 개념이나 어떤 한 사람의 의도나 뜻이 언어적 진술, 태도, 동작신호, 음성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Reusch, 1973)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연구는 Wiemann (1977), Duran(1983) 등의 연구가 있으나 최근에 Heo(2003)가 포괄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한 연구가 있으며 Yoo와 Yoo(2001)는 표준화 환자와 간호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해 측정한 연구가 있다.

간호수행 능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대인관계, 의사결정, 정신운동기술을 활용하는 상태(Luttrell, Lenburg, Scherubel, Jacob, & Koch, 1999)를 의미하는데 간호학 실습교육과정을 통해 교실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통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Lee 등(1990)의 도구개발 연구가 있으며 Choi(1992)과 Cho(2005)는 이 도구를 수정하여 각각 임상수행 능력과 스트레스요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개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호교육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팀은 개발된 도구를 중심으로 교육성과 측정 개념 중 일차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관에 대해 한국 간호학생과 중국간호학생의 간호교육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동서간호학 연구소주관으로 진행하였다. 중국간호학생과 비교하고자 한 것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본대학과 중국의 일개 간호대학이 본 대학의 특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최근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원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학생의 간호교육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중국은 동양적사고로 문화적 측면이 유사하다고 보아 양국가의 간호학생간에 국제교류를 위해 간호교육성과를 측정하고자하였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간호대학생과 중국의 간

호대학생간의 간호교육성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며 한국의 인정평가위원회에서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5개 개념인 비판적사고력, 전문직관, 지도력, 의사소통능력, 간호수행능력 중 1차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관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한국과 중국의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비교한다.
- 한국과 중국의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을 비교한다.
- 한국과 중국의 간호대학생의 관련교과목 선수경험 유무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을 비교한다.
- 한국과 중국의 간호대학생의 관련교과목 선수경험 유무에 따른 전문직관을 비교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교육성과의 주요 개념인 비판적사고력, 전문직관, 지도력, 의사소통 능력, 간호수행능력의 5개념 중 일차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관에 대하여 비교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조사를 위한 연구대상은 한국의 경우, K대학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04명과 중국의 경우, S대학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03명으로 구성된 총 207명으로 편의표집하였다. 한국과 중국에 각각 120부의 자가 보고식 설문 방식에 의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214부의 설문지 중에서 문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207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수집되었으며, 자료조사는 한국측과 중국측의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할 수 동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무기명으로 실시하였다.

### 연구 도구

●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2004)이 개발한 비판적사고 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지적열정/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의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는 5점 척도를 두어 ‘정말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에 5점까지로 배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도구는 개발당시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4였고,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7요인의 설명 분산이 51.99%였고 요인적재 값은 .46에서 .80범위였다. 본 도구는 중국의 간호학생들을 위해 각각의 문항이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번역의 정확성을 위해 역번역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0이었고 한국은 .84이었고 중국은 .76이었다.

● 전문직관

전문직관은 Dagenais 와 Meleis(1982)에 의해 개발된 자가측정 전문직관 도구(Nurse Self-Description Form for Professionalism, Work Ethic, and Empathy)를 Oh 등(2007)이 번역한 한국형 자가측정 전문직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전문성, 직업윤리, 감정이입의 3개의 영역으로 구

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는 5점 척도를 두어 ‘부족하다’ 1점에서부터 ‘매우 뛰어나다’에 5점까지로 배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도구는 개발당시 국외에서의 전체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93이었고 각 요인별 신뢰도가 전문성 Cronbach's alpha= .92, 직업윤리 Cronbach's alpha= .82, 감정이입 Cronbach's alpha= .80이었다. 본 도구는 중국의 간호학생들을 위해 각각의 문항의 영어 원문이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번역의 정확성을 위해 역번역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88로 한국은 .85이었고 중국은 .88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일반적 특성에서 비모수측정치는  $\chi^2$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일반적 특성에서 모수측정치와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관의 국가별 또는 학년별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중국의 간호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and China

Variables	Korean students (n=104)				Chinese students (n=103)				$\chi^2$ /t-test	p	
	M	SD	n	%	M	SD	n	%			
Age	Year	20.71	1.72			20.96	2.51			.852	.395
Gender	Male			1	1.0			0	0		
	Female			103	99.0			103	100		
Grade	1st			23	22.1			22	21.4		
	2nd			32	30.8			20	19.4		
	3rd			20	19.2			20	19.4		
	4th			29	27.9			20	19.4		
	5th							21	20.4		
Religion	Yes			68	65.4			0	0		
	No			36	34.6			103	100		
Previous courses related to critical thinking	Yes			45	43.3			9	8.7	29.462	<.001
	No			59	56.7			94	91.3		
Previous courses related to professionalism	Yes			41	39.4			18	17.5	12.232	<.001
	No			63	60.6			85	82.5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평균 연령은 20.61세였으며, 성별은 여자(99.5%)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한국의 간호학생은 1학년 23명, 2학년 32명, 3학년 20명, 4학년 29명으로 구성되었고 중국의 간호학생은 1학년 22명, 2학년 20명, 3학년 20명, 4학년 20명, 5학년 21명으로 구성되었다.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과목을 배운 경험과 전문직 관련 선수과목 경험은 한국학생이 중국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관을 국가별 차이뿐만 아니라 관련 교과목 선수경험별로도 비교하여 보았다.

**한국과 중국의 간호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관 비교**

한국과 중국의 간호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 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92.75점(135점 만점)으로 한국의 간호학생은 평균 97.06점이었고 중국은 평균 88.61점으로 한국의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t=6.286, p<.001$ ).

전문직관의 경우 전체 평균 점수는 68.77점(95점 만점)으로 한국학생은 평균 65.44점이었고 중국의 학생은 평균 72.14점으로 중국의 간호학생의 전문직관 점수가 한국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4.876, p<.001$ ).

**관련교과목 선수경험별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관의 비교**

한국과 중국의 관련교과목 선수경험별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관을 측정 한 점수는 <Table 3>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관련된 교과목을 미리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t=2.102, p=.037$ ), 전문직관은 관련 교과목을 미리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없었다( $t=1.101, p=.272$ ).

**논 의**

본 연구는 간호교육성과 평가를 위해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정한 5개의 영역인 비판적 사고력, 전문직관, 지도력, 의사소통능력, 간호수행능력 중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관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가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간호학생의 교육성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유학생의 기준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미래 간호인력 활용에 있어서도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한국의 간호교육과정이 주로 3년제와 4년제로 구분되어있는 것에 비하여 중국의 경우 4년제와 5년제로 구분되었고 입학자격이 일반적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임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의 간호대학은 5년제 과정이었으며 교과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나 전문직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한

<Table 2> Difference of critical thinking and professionalism between Korean and Chinese nursing students

Variables	Korean students (n=104)		Chinese students (n=103)		t	p
	M	SD	M	SD		
Critical thinking	97.06	12.23	88.61	5.92	6.286	<.001
Professionalism	65.44	11.60	72.14	7.75	-4.876	<.001

<Table 3> Difference of critical thinking and professionalism by previous experience of related courses

Variables	Experience (n=54)		No-experience (n=153)		t	p
	M	SD	M	SD		
Critical thinking	94.78	13.94	91.59	7.63	2.102	.037
Professionalism	Experience (n=59)		No-experience (n=148)			
	M	SD	M	SD		
	70.03	12.92	68.27	9.22	1.101	.272

국의 간호대학의 경우 2학년 교과과정에 '비판적 사고와 간호'가 전공 선택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관련 교과목의 선수경험을 조사한 결과 비판적 사고가 전문직관보다 양국가간에 더 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양국가간의 비판적 사고성향 비교에서 한국은 97.06점(135점 만점)이었고, 중국은 88.61점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6.286$ ,  $p<.001$ ). 이는 한국학생들의 43.3%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8.7%만이 관련과목을 수강하였다고 보고하였음을 감안할 때 국가 간의 차이보다는 교육의 효과가 좀 더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본 연구에서 한국 측 대학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의 과목이 2학년의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었다. 선행연구인 Yoon(2004)의 95.55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한국학생 대상자군의 점수가 더 높았다. 한편, Yoon(2004)의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비판적 사고관련 과목의 선수경험여부를 보고하지 않았지만 교과과정에 비판적 사고라는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며 1학년군과 4학년군의 점수가 95.09과 97.44로 2.35의 차이가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1학년과 4학년의 점수가 94.10점과 103.22점으로 좀 더 큰 점수차이인 9.12점이었음을 고려할 때 비판적 사고를 주제로 한 교과과목의 수강경험이 비판적 사고성향 함양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임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본 연구의 한국측 간호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함양에 관심을 갖게 되어 '비판적 사고와 간호'라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임상현장은 끊임없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판적 사고 없이 이루어지는 간호행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목 혹은 관련 교과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간호학생들이 임상현장을 접하기 전에 비판적 사고성향을 기르도록 하여 임상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교육성과 측정영역인 전문직관을 분석한 결과 한국학생은 65.44점(95점 만점)이었고 중국학생은 72.14점으로 중국학생이 한국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t= -4.876$ ,  $p<.001$ ). 이는 Kim

등(1999)의 연구에서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현직 간호사를 위한 2년의 편입과정(RN-BSN)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입학 시 점수인 91.20(133점 만점)을 9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인 입학시 65.14점보다 높았고 졸업 시 점수인 70.83보다는 한국학생은 낮은 점수를 중국학생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저학년생들과 고학년생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우 1학년은 61.96점이었고 4학년은 70.17점으로 4학년이 1학년보다 8.21점이 더 높았다. 이는 교육과 함께 병용된 체계화된 임상실습경험이 학부생인 1학년과 4학년의 점수차이에 크게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에서도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점수 범위가 67.10점에서 71.50점인 반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5학년의 경우 77.77점으로 4학년보다 6.27점이 더 높았다.

그러나 전문직관과 관련된 선수과목의 경험여부는 점수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즉, 관련과목 경험학생들의 전문직관이 70.03점이었고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은 68.2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033$ ,  $p=.272$ ). 본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양 대학에 전문직관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없었고,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간호수행과 관련된 전문성, 직업윤리 및 감정이입의 수준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간호수행을 실습하는 현장실습인 임상실습의 경험여부가 긍정적인 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Jeong(2007)의 연구에서도 임상에서 간호전문직관에 따라 간호수행능력이 달라지므로 간호전문직관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교육성과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연구교류를 위해 일차적으로 중국의 간호교육 환경을 중국의 간호역사와 함께 이해하며 교과과정을 분석하는 선행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성과 평가를 위해 한국 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5개 영역 중 먼저 2개 영역을 평가하며 중국과 한국학생들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지속적인 연구교류의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여전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부터 오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현지 연구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시도한 공

동연구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국제연구교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연구였다.

## 결론 및 제언

###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관을 비교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간호대학생 120명과 중국의 간호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회수되지 못하거나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07명(한국: 104명, 중국: 10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일반적 특성에서 비모수측정치는  $\chi^2$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일반적 특성에서 모수측정치와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관의 국가별 또는 선수경험별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61세였으며, 여학생이 99.5%를 차지하였다. 한국측의 경우 4년제 교과 과정에 1학년 23명, 2학년 32명, 3학년 20명, 4학년 29명이 응답에 참여하였고, 중국측의 경우 5년제 교과 과정에 1학년 22명, 2학년 20명, 3학년 20명, 4학년 20명, 5학년 21명이 참여하였다. 한국의 경우 교과과정에서 전문직관을 중점으로 다룬 교과목은 없었지만 비판적 사고라는 교과목이 2학년에 전공선택으로 개설되어 있었으나 중국의 경우 비판적 사고나 전문직관을 중점으로 다룬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92.75점(135점 만점)으로 한국이 97.06점, 중국이 88.91점으로 한국의 간호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전문직관은 평균 68.77점(95점 만점)으로 한국이 65.44점 중국이 72.14점으로 중국의 간호학생들의 전문직관 점수가 한국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관련교과목 선수경험별 차이로는 비판적 사고는 선

수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게 나왔으나 전문직관은 선수경험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제언

-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교육성과 영역의 이해를 서술한 필요하다.
- 한국과 중국의 교과과정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 교육성과의 5개영역을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 개발 및 효과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Bae, Y. S., Lee, S. H., Kim, M. H., & Sun, K. S. (2005). Effects of PBL (Problem-Based Learning) on self-directed learning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2), 184-190.
- Cho, H. S. (2005).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2), 222-231.
- Choi, H. J. (2004). The effects of PBL(Problem-Based Learning) on the metacognition,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proc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5), 712-721.
- Choi, H. Y. (1992). *A correlational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linical nursing skills and stress factors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Commission on Collegiate Nursing Education (2002). *CCNE Accreditation*. Retrieved on November 10, 2007 from <http://.aacn.nche.edu>.
- Dagneais, F., & Meleis, A. I. (1982). Professionalism, work ethic, and empathy in nursing: The nurse self-description form.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4(4), 407-422.
- Daly, W. M. (2001). The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method in the assessment of critical thinking as an outcome of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6, 120-130.
- Duran, R. L. (1983). Communicative adaptability: A measure of social communicative competence. *Communication Quarterly*, 31, 320-326.

- Heo, G. H.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3). *An implementation models for the ICN framework of competencies for the generalist nurse*. Standards and Competencies Series, ICN.
- Jeong, S. H. (2007). *The ethical attitude related to DNR and the views on nursing profession among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 Kim, C. J., Ahn, Y. H., Kim, M. W., Jeong, Y. O., & Lee, J. H. (2006). Development of standards and criteria for accreditation of a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program: Reflections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prof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6), 1002-1011.
- Kim, H. S., Oh, G. S., & Lee, K. J. (1999). The evaluation of nursing education using an adult learning methods.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8(1), 124-138.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06). *2006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1-47.
- Kwon, I. S., Lee, G. E., Kim, G. D., Kim, Y. H., Park, K. M., Park, H. S., et al. (2006). Development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6), 950-958.
- Lee, H. C. (1999). Issue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nursing education.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8(1), 9-25.
- Luttrell, M. F., Lenburg, C. B., Scherubel, J. C., Jacob, S. R., & Koch, R. W. (1999). Competency outcomes for learning and performance assessment. Redesigning a BSN curriculum. *Nursing & Health Care Perspectives*, 20(3), 134-141.
- Manz, C. C. (1983).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New York: Prentice Hall Inc.
- National League for Nursing Accrediting Commission (2002). *Accreditation manual and interpretive guidelines by program type for post secondary and higher degree program in nursing*. Retrieved November 10, 2007 from <http://nlnac.org>
- Oh, G. S., Lee, H. Y., Choi, K. S., Ko, M. S., Lee, S. J., Kim, I. J., et al. (2007). *A study of evaluating nursing education*.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Report, Unpublished manuscript.
- Ruesch, J. (1973). *Therapeutic communication*. New York: W.W.Norton & Co., Inc.
- Shin, K. R., Ha, J. Y., & Kim, K. H. (2005). A Longitudinal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2), 382-388.
- Shin, Y. K. (1991). *Organizational behavior*. Seoul: Dasan Co.
- Smola, B. K. (1988). *Refinement and validation of a tool measuring leadership characteristic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pp. 314-336.
- In Ora, L. Strickland, & Carolyn, F. Waltz (1988). *Measurement of nursing outcomes, vol.2, measuring nursing performance: practice, education, and research*,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Wiemann, J. M. (1977). Explication and test of a model of communicative compete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 195-213.
- Yeun, E. J., Kwon, Y. M., & Ahn, O. H.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 Yoo, M. S., & Yoo, I. Y. (2001). The effectiveness of Standardized Patient Managed Instruction for a Fundamentals of Nursing Course.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10(1), 89-109.
- Yoon, J.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